

광주 시민이 직접 만드는 ‘착한 에너지’

‘햇빛발전소’ 오늘 준공식

250명 1억7000만원 출자

수익금 추가 건립에 사용

광주의 어린이, 학생, 주부 등 시민 250명이 출자한 자본금 1억7000만원으로 건립한 ‘햇빛발전소’가 22일 준공식을 열고 전기생산에 들어간다. 그동안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시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꾸리고 대안 에너지로 평가받는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시작한 것은 광주전남에서 최초다.

조합원들은 미국 스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손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자’는 뜻을 모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그린카진흥원 옥상(1200㎡)에 햇빛발전소를 지어 올렸다.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2일 오전 10시30분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준공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조합 측은 준공식 이후 곧장 발

■광주시민햇빛발전소 운영 계획



광주시 광산구 그린카진흥원 햇빛발전소

전소 가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발전소 준공은 지난 2015년 6월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되고 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조합은 그해 연말까지 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 취지에 공감하는 초등학생, 대학생, 주부, 출향인 등 250여명의 시민들이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출자한 돈 1억7000만원을 모았다.

이후 그린카진흥원과 옥상 활용을 위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뒤 올 1월 착공에 들어가 채 2개월도 걸리지 않고 똑딱 발전소를 지어 올렸다.



햇빛발전소 1호기 규모(시간당 발전량) 100kW가량이다.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4인 기준 25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다. 조합측은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한다. 월 매출은 200만~250만원. 발전소 유지비용을 제외해도 연간 2000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익금 일부는 조합원 출자금에 맞게 일정부분 배당하고 나머지는 적립할 계획이다. 시민햇빛발전소 추가 건립을 위해서다.

조합원들 발전소 부지를 기존 공간(건물 옥상)으로 택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

면서 궁극적으로는 위험한 에너지로 평가받는 핵발전소가 설 자리를 좁히는 게 목표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런 뜻을 공감한 시민들이 전국에 60곳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운영하고 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광주가 일조량이 풍부한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운영하는 햇빛발전소가 올해 건립된 것은 다른 도시에 걸췌 다소 늦은 편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이희한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추가로 에너지재단 지원으로 건립되는 햇빛발전 2호기(60kW), 시민출자금으로 햇빛발전소 3호기 건립이 계획돼 있다”면서 “시민들 손으로 지어올린 햇빛발전소가 위험한 에너지 핵발전소의 대안에너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 2015년 ‘햇빛발전으로 광주를 탈핵 에너지전환도시로 만들어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한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I-coop 생협, 불교환경연대, 에코바이크 회원 가족, 시민이 참여해 꾸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독서 통해 자연보전 중요성 깨달아요”

광주 서구 생태학습도서관

4월부터 책놀이 등 다채

광주시 서구는 서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한 ‘201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선정에 따라 서구는 강사료와 행사 운영비 등 교육운영비 5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4월부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서구는 ‘우리 전통문화와 그림책’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9월까지 총 24회 차례 진행된다. 서구 관내 ‘동화나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책놀이, 영화 관람,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샌드 아티스트’로 널리 알려진 주홍 작가가 어린이들과 함께 샌드 애니메이션 만들기 체험행사도 연다.

서구 관계자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책 읽기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과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전시실을 찾은 어린이들이 전시물을 관람하는 모습.

〈광주시 서구 제공〉

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구 풍암동에 자리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23㎡ 규모로 건립, 운영 중이다. 열람실, 종합자료실, 이야기방, 시청각실, 모자열람실 및 디지털자료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기획전시실 및 상설전시실에는 연중 생태 전시가 열린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독서습관을 심어주려고 ‘그림책 읽어주는방’, ‘동화송 그림책사냥’, ‘상상속속 오감놀이터’, ‘신나는 자연탐험단’, ‘나도 자연예술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도서관 주변에는 산책로와 야생화단지, 생태정원, 놀이터가 조성돼 있다. 문의 서구청 도서관과 062-350-4586.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큰입배스·돼지풀 등 외래생물 집중 퇴치

영산강환경청, 다음 달부터 영산강·주암호 등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생태계 교란을 막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2017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퇴치사업의 주요 대상지는 영산강, 주암호 지역이다.

올해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20종(種) 가운데 확산 추세인 식물 8종, 어류 2종, 양서류 2종 등 총 12종을 대상으로 집중 퇴치사업을 벌인다. 퇴치 대상 생물종 12종은 가시박, 돼지풀, 도깨비가지, 서양금혼초,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털물참새피, 애기수영 등 식물 8종, 큰입배스, 파랑불우럭 등 어류 2종,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양서류 2종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위해 지난해 사업비 2억 2000만원 대비 150% 증가한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서식분포를 사전조사하고 사업대상지역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식물의 경우 사업지역을 영산강 종류

까지 확대하여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영산강유역 관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는 복원사업을 실시한다.

어류는 기존 주암호 등 5개 호소에서 탐진탐, 상사탐, 광주탐까지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큰입배스와 파랑불우럭을 집중퇴치하고 양서류는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퇴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생물다양성의 날(5월22일)을 전후로 외래생물 퇴치행사를 개최한다.

전문가와 지자체·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외래생물 퇴치 협의체’를 구성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효율적인 퇴치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에는 범정부호호지역 및 영산강 상류, 주암호 등 5개 담수호와 제주지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총 8종을 대상으로 퇴치사업을 추진해 큰입배스 등 어류 1만4177kg, 돼지풀 등 식물 3만9658kg, 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41kg을 제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금당산·팔학산 숲에서 뛰놀 아이들 모여라”

광주 서구 24일까지 기관 모집

광주시 서구는 금당산과 팔학산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의 숲 교육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숲 교육을 통해 삭막한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숲이 가지는 소중한 가치와 기능을 알려주고 정서함양과 건강증

진 도모를 위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서구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다.

서구청과 기관 협약체결을 통해 월 1회 이상 참여하는 정기형과 사전신청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참여하는 수시형으로 구분모집한다. 모집 마감일이 24일이

어서 서둘러 신청해야한다.

지난해 조성된 팔학산 유아 숲은 3월 개원한다.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에는 동천동 유적근린공원에 추가로 숲체험원이 조성된다.

지난해 개원한 금당산유아숲체험원은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

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지난 한해에만 3700여명의 어린이들이 숲 체험 교육에 참여했다. 광산구청 등 10여개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원녹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문의는 서구청 홈페이지와 공원녹지과(062-360-7610)로 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광주 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월세수익내면서 내 건물 확보)

추천

■ 본사건물 / 지사 건물

연구실,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시세가 60억

■ 매 가 38억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광주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 평수 15평

◆ 평수 12평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용 2천)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5평) 천변로 전방 최고

보1천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용 5천)

■ 상무지구 주거용/사무실 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서구 생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윤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062-511-7800

010-6832-97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8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음식점,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광산구 소촌동 (주유소)
토 207평, 건 43평
소촌공단 입구 6차선 도로 접
▶감정가 5억6천 → 최저가 5억6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료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면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